



코로나시대의 예배
하이브리드 교회
(Hybrid Church)

글_강화구 목사(제일영도교회)

걸어도 2-3개월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했었는데 그 판단이 틀렸음을 알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으며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입니다. 1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예배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의 다수는 이제 비교적 쉽게 비대면예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한 해는 처음 걷는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새로운 고민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적, 목회적, 현실적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공예배의 중요성을 여기서 더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 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위험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의 일원으로 공적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름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

당회원 모두는 대면예배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교회발 팬데믹 소식들을 접하면서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이요, 교회의 또 다른 존재 목적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니어 비율이 높은 교회의 특성상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 문제와 걱정에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정기적으로 당회를 열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모임을 지속하면서 교회가 방역지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방역지침에 따라 예배 및 기도회, 찬양대 및 소모

임, 차량 운행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이 매뉴얼에 따라 사회생활에서보다 더 엄격히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안전과 함께 예배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교회(Hybrid Church)로서 정상 교회를 추구한다.

비록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우선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2부로 드려지던 주일예배를 3부로 확대 개편해서 더 많은 성도가 예배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명으로 예배 인원이 제한될 때는 교회 건물 내 다른 예배 공간을 마련해서 성도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 비대면으로 바뀌면 모든 정규 예배와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일 오전, 오후 예배와 수요, 금요기도회는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드렸으며, 새벽기도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유튜브를 통해 아침 묵상을 제공해서 새벽기도회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연시는 팬데믹이 창궐함에 따라 완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이브리드 교회로서 정상 교회를 꿈꾸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벽두 완전 비대면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했고, 작년엔 미뤄두었던 헌신예배나 세미나, 특강 등도 빠짐없이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하이브리드 교회가 되어 가는 셈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마 성례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회는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면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예배가 가능한 시점이 오면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성찬을 공고하고 곧바로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분별과 분잔의 모든 순간에 모든 성도는 따로 준비된 비닐장갑을 끼고 성찬에 임해야 했습니다.

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그룹 성경공부의 경우 줌(Zoom)으로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첫 해는 매분기마다 서너 개의 강의를 개설했고, 올해는 8개의 강의를 개설하여 성도들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교회는 성경공부와 교회학교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교역자들에게 줌 계좌를 제공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각 교육기관에 와이파이 장치를 새롭게 해서 하이브리드 교회에 더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교사 재교육을 위해 전체 교사들 대상으로 온라인 교사대학도 시행합니다.

셋째, 비본질에 유연하고, 본질에 집중한다.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비대면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성도들의 삶의 패턴과 의식구조도 상당히 많이 변해 버렸습니다. 변화를 따르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세상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확신했기에 2021년을 향후 20년 동안 전개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두 가지 중심 원리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입니다. 지난 연말 전교인이 함께 성경 전체를 필사했고, 새해부터 함께 성경통독을 독려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을 교재로 매일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흠어진 교회로서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예배와 수요기도회에서는 책별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학기에 진행되는 제일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전체 성경을 책별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년 전체 성경 묵상, 10년 전체 말씀 강해, 20년 전체 성경 공부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남겨진 고민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는 마음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동일한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교회’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현재는 대면을 중심으로 하면서 비대면을 하나의 보조 장치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예배 화면 송출의 단계를 넘어 온라인을 하나의 사역적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가도 비대면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비대면 공간에 거주하고 있기에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사역은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기보다 진정한 의미의 하이브리드 교회를 더욱 확대하고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교회 성도의 노령화가 진행된 이 시점에서 하이브리드 교회로의 전환에 최대 장애물은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 해독 능력(Media Literacy)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시니어들은 폴더폰만 가지고 있거나, 알뜰폰으로 유튜브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난 한 해 매일 교회에 출근하면서 텅빈 예배당과 교육관들을 보아 왔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교회가 가장 비효율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텅빈 공간이지만 유지보수비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간’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상‘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은행업무를 보며 쇼핑을 합니다. 이젠 재택근무까지

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을 넘어 전혀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심이 되어 왔던 예배당 중심의 교회 생활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필요합니다. 넓은 교회 건물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로서 새로운 공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형 집회 중심의 교회 사역은 팬데믹 상황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예배를 강화하고, 소그룹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소그룹 중심, 가정예배를 강화해온 교회들은 팬데믹 상황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신학적 고민들도 있습니다. 신학적 입장 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목회자와 당회의 판단에 기초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에, 차근차근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개체교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옳은가? 팬데믹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실질적으로 성례를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인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교인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 대응함으로 쇠퇴기를 겪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교회의 약한 고리들을 제거함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 팬데믹을 잘 극복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과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누리길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